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선호 헤어스타일 및
헤어추구이미지와의 관계: 미용실 방문객을 중심으로

김선미 · 하경연⁺
한국국제대학교 미용예술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Preferred Hairstyle and
Pursued-Image of Hairstyl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cusing on Hair Salon Visitors

Kim Sunmi · Ha Kyungyun⁺
Dept. of Beauty Design,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preferred hairstyle and pursued-image of hairstyl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 content analysis and survey research using a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items of pursued-image of hairstyle, preferred hairstyle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450 women were selected as subjects of this study; they were randomly selected from hair salon located in Seoul, Incheon and Bundang. For the material analysis, We used the statistical program of SPSS 12.0; frequencies, factor nalysis,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 Test and χ^2 Test were carried out as the methods of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hairstyles according to the content analysis usually resulted 5 hairstyles, such as cuts and crew cut, bobbed hair, long layered hair styles and nonlayered long hair styles. Second, under the survey regarding the difference of preferred hairstyle and pursued-image of hairstyl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ety of hair styles due to the subjects were more willing to try a consciousness about other's suggestions and how they are portrayed. Moreover a low level of education was related to a attempting a variety of styles, considering their social life.

Corresponding author: Ha Kyungyun, Tel. +82-55-751-8434, Fax. +82-55-759-8439
E-mail: yun8434@iuk.ac.kr

This research is a part of master's thesis.

Subjects with higher age, education level and salary preferred a glamorous image as well as crew cuts. Which made them look younger. However, when they were younger, they preferred long nonlayered hair styles. In conclusion, age, average monthly income and education level are important variations affecting the property of change in hairstyles and pursued-image of hairstyles.

Key words : demographic characteristics(인구통계적 특성), favorite hairstyle(선호 헤어스타일), length(길이), pursued-image of hairstyle(헤어추구이미지), texture(질감)

I. 서론

현대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한 경향은 자신의 개성 추구 및 새로운 이미지로 변신하고자 하는 욕구 충족으로 이어지고 있다(K. Ha, 2006).

외모는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나아가 개인의 삶과 성공을 결정짓는 수단이 된다(Bae & Sung, 2013; K. Ha, 2011; S. Kim & Lee, 2007). 특히 외모 중 헤어스타일은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고 짧은 시간으로 변화가 용이하여 때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결점을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점에서 개성 표현에 큰 역할을 한다(K. Lee, Kim, & Kim, 2012).

이렇듯 헤어스타일은 시대적 관심은 물론 사회적 인식 등이 반영되어 유행 감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신분, 직업, 나이, 체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Yoon, 2001). 또한 개인적 취향에 따라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헤어스타일을 통해 그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C. Ha, Ko, & Chung, 2005).

따라서 성별이나 연령, 직업, 학력, 월수입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개인의 선호 헤어스타일 및 헤어추구이미지에 대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러 심리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선호 헤어스타일과 헤어추구이미지와 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

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미용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미용실무자들의 고객 관리를 수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선호 헤어스타일과 헤어추구이미지의 특성을 알아본다.
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선호 헤어스타일과 헤어추구이미지와 의 차이를 살펴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호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은 원랭스(Onelength), 그라주레이션(Graduation), 레이어(Layer) 등 3가지 컷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길이에 따른 차이로 인한 스타일, 질감(펌 & 스트레이트)에 따른 스타일, 색상 변화로 인한 스타일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변화를 줄 수 있다(Seo, 201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O. Lee(2009) and Seo(2010)는 헤어스타일을 아주 짧은 머리, 짧은 머리, 중간 머리, 긴 머리 등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선호 헤어스타일이 연령, 직업 및 결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짧은 머리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직업의 경우 주부, 자영업, 전문직이 짧은 머리를 선호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특히 회사원의 경우 짧은 머리나 긴 머리 등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반면, 헤어스타일 선호도 연구에서 Kang(2007)은 헤어스타일을 긴 두발, 중간 두발, 짧은 두발 등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25-29세의 직장인이 긴 두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세 이상인 직장인은 중간 두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J. Kim(1999)은 헤어스타일을 숏컷트, 단발, 긴 머리 등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은 긴 머리스타일이고,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은 숏컷트 스타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K. Kim(2012)은 고졸의 학력집단과 월평균수입이 100-300만원 미만일수록 짧은 머리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 중간 머리, 아주 짧은 머리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중년 여성일수록 볼륨 있는 헤어스타일을 쉽게 연출하기 위해 비교적 손질이 쉽고 간편한 짧은 머리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Hyeran Kim(2006)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단발머리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긴 머리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단발머리 스타일의 경우 단정해 보이고 세련되어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낯에도 잘 어울리고, 동안 이미지 연출에도 가장 적합한 스타일이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G. Ha(2012)는 연령이 높을수록 짧은 커트의 웨이브 헤어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하였으며, 연령이 적을수록 긴 머리에 웨이브 헤어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직업의 경우 학생일 때 긴 머리에 웨이브 헤어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리며, 직장인, 전업주부의 경우 짧은 커트에 웨이브 헤어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직장인의 경우 바쁜 출근시간 때문이며, 전업주부의 경우 육아에 집중해야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한 헤어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선호 헤어스타일은 연령과 학력, 직업, 월평균수입 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커트 스타일과 웨이브와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헤어스타일을 모발 길이 별로 숏컷트, 상

고커트, 단발커트, 층이 있는 긴 머리, 층이 없는 긴 머리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잡지를 이용한 내용분석법으로 그 내용을 도출하였다. 참고자료는 본 연구를 조사한 시점인 9월을 중심으로 헤어스타일 트렌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여성 헤어스타일을 길이별로 그 형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잡지는 판매율이 높은 보그 코리아 2013년 9월호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2. 헤어추구이미지

헤어추구이미지는 디자인 요소인 형태, 색채, 질감 등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H. Lee, 2008), 헤어 디자이너는 고객과 소통하고 더불어 신체적 조건과 개성, 그리고 유행 등을 고려하여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게 된다(Hwan Kim, 2001). 헤어추구이미지는 디자인 요소들을 이용한 헤어스타일의 시각적 특성이 독립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하여 전달됨으로써 나타나는 전체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헤어스타일 이미지 중 자신이 선호하는 이미지를 헤어추구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Donna(1991)는 헤어스타일에서 헤어컷 스타일 또는 질감은 얼굴색과 두상의 구조 및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헤어스타일이 두상의 형태 변화나 얼굴의 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M. Lee(2004)는 헤어스타일은 첫 인상과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한 부분으로 개인의 자신감과 외모만족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개인의 헤어스타일은 얼굴의 생김새와 함께 전체적인 이미지로 평가됨으로써, 이미지 지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의 이미지 평가에서 헤어스타일이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밝혔다.

헤어추구이미지 관련 선행 연구에서 Y. Lee(2007)은 헤어스타일을 롱(Long), 미디움(Medium), 숏트(Short) 등 3가지 스타일로 분류하였으며 롱 헤어스타일의 경우 정숙한 이미지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디움 헤어스타일은 도시적인 이미지로, 숏트 헤어스타일은 도시적

인 이미지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롱 헤어스타일은 로맨틱하고 클리어한 이미지가 가장 높았으며, 미디움 헤어스타일은 모던하고 엘레강스한 이미지로 숏트 헤어스타일은 클래식, 댄디, 프리티 등의 이미지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No(2011)는 연령, 학력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연령의 경우 20대는 독특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30대는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이미지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40대는 단정한,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여성적이고 단정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이하일수록 여성적인 이미지와 화려한 이미지를 선호하였으며, 대졸 이상일수록 보다 품위 있고 전문직 같은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Hyangwon Kim(2011)은 연령이 많은 고소득, 전문직 여성일수록 정기적으로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정하고 보편적인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B. Kim(1999)은 자연형, 낭만형, 고전형, 대담형 등 4개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웨이브가 없는 자연형을 선호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부드럽게 웨이브 진 낭만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K. Kim(2012)은 헤어추구이미지를 부드럽고 사랑스러움, 자연스럽고 친근함, 우아하고 고급스러움, 도시적이고 세련됨, 중성적이고 자유로움 등 5개 요인으로 분류 하였으며, 자연스럽고 친근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40-50대 여성들의 경우 개성 있고 너무 눈에 띄어 보이는 독특한 스타일을 하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헤어추구이미지는 연령과 학력, 소득수준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령, 학력,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1) 선호 헤어스타일 선정

선호헤어스타일 선정을 위하여 내용분석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헤어스타일을 모발 길이별로 숏컷(Short Cut), 상고컷(Crew Cut), 단발컷(Bob hair Cut), 층이 있는 긴 머리(Layered longhair Cut), 층이 없는 긴 머리(Layer with no Longhair Cut) 등으로 나타냈다. 헤어스타일의 내용분석법은 패션 및 뷰티관련 전문자료로 판매량이 높은 잡지를 이용하였으며, 분석한 내용은 미용실에 근무하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헤어스타일을 길이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인 Wella Korea Look Book(2013)을 이용하여 헤어스타일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미용실에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 3인에게 임의로 추출한 그림 자료를 제시하고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헤어스타일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질의하여 정하였다. 분석의 기준은 모발의 길이를 턱 선과 어깨선을 기준으로 숏컷 스타일, 상고컷 스타일, 단발컷 스타일, 층이 있는 긴 머리 스타일, 층이 없는 긴 머리 스타일 등 5가지로, 질감은 크게 웨이브와 스트레이트 2가지로 정하였다.

선호 헤어스타일은 본 연구의 내용분석법에 따른 결과에 그 항목이 선정되었으며, 숏컷(Figure 1), 상고컷(Figure 2), 단발컷(Figure 3), 층이 있는 긴 머리(Figure 4), 층이 없는 긴 머리(Figure 5)의 5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방법은 선호하는 헤어스타일 한 개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내용분석법에 의한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Figure 1. Shot Cut
- HAIR GRAPHY (2013. 09),
p.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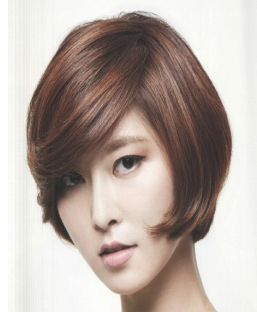


Figure 2. Crew Cut
- BeautyFashion (2013. 09),
p.63



Figure 3. Bob hair Cut
- ESTETICA (2013. 09), p.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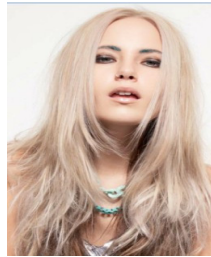


Figure 4. Layered longhair Cut
- ESTETICA (2013. 09), p.100



Figure 5. Layer with no Longhair Cut
- BeautyFashion (2013. 09), p.60

Table 1. Distribution of Length of Texture of Hairstyle according to Content Analysis

Length Texture	Short cut	Crew cut	Bob hair cut	Layered longhair cut	None layer long hair cut	Total
Wave	9(2.5)	9(2.5)	32(8.8)	35(9.6)	76(20.8)	161(44.1)
Straight	38(10.4)	28(7.7)	26(7.1)	29(7.9)	83(22.7)	204(55.9)
Total	47(12.9)	37(10.1)	58(15.9)	64(17.5)	159(43.6)	365(100)

Table 1에서 보면 헤어스타일의 길이별 분포는 층이 없는 긴머리가 43.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층이 있는 긴 머리, 단발커트, 숏커트, 상고커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감별 분포는 층이 없는 긴 머리스타일에 스트레이트 질감이 22.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층이 없는

긴 머리스타일에 웨이브 질감 20.8%, 숏커트스타일의 스트레이트 질감 10.4%, 층이 있는 긴 머리스타일의 웨이브 질감 9.6%, 단발커트스타일의 웨이브 질감 8.8%, 층이 있는 긴 머리스타일의 스트레이트 질감 7.9%, 상고커트스타일의 스트레이트 질감 7.7%, 단발커트스타일의 스트레이트 질감 7.1%,

숏컷과 상고커트스타일의 웨이브질감이 2.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층이 없는 긴 머리스타일에 스트레이트 질감이 가장 높았으며, 숏컷과 상고커트스타일의 웨이브질감이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선호 헤어스타일은 숏컷, 상고커트, 단발커트, 층이 있는 긴 머리, 층이 없는 긴 머리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2) 헤어추구이미지

헤어추구이미지는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헤어스타일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헤어추구이미지는 개성, 부드러운, 우아한, 트렌디, 현대적, 어려보이는, 복고적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헤어스타일 추구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항은 Hyangwon Kim(2011)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본 연구의 대상자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전체 7개차원에 3-4개 문항씩 구성되어 최종 22개의 문항이었다. 헤어추구이미지문항 및 추출된 7개 차원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과 요인의 상관계수 및 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측정방법은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이미지가 매우 그러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3) 인구통계적 특성

인구통계적 변인은 연령, 학력, 월평균 수입의 정도를 조사하였다(Table 2).

2. 표집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 및 인천, 분당 지역의 미용실을 방문한 고객 중 20대-50대 여성이었다. 조사방법 및 기간은 비확률 표본의 편의표본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2013년 9월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50부를 배포하여 430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에서 응답상의 오류나 불성실한 답변 등 연구에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404부를 유효 표본으로 삼아 최종 실증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일원변량분석 및 Duncan의 다중범위검정, t검정, χ^2 검정, 신뢰도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40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Age	The age of 20s	106	26.2
	The age of 30s	123	30.4
	The age of 40s	100	24.8
	The over 50s	75	18.6
Educational level	Under high school graduate	211	52.2
	Over bachelor degree	193	47.8
Average monthly income	Under 150 million won	113	28.0
	Under 150-250 million won	145	35.9
	Over 250 million won	146	36.1
Total		404	100%

IV. 결과 및 논의

1. 헤어추구이미지의 차원

헤어추구이미지요인은 개성, 부드러운, 우아한, 트랜드, 현대적, 어려보이는, 복고적 차원으로 분류되며, 각 요인에 대한 문항의 상관계수와 신뢰도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각 차원의 문항간의 상관계수는 .448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개성’ 요인은 .89였고, ‘부드러운’ 요인은 .78, ‘우아한’ 요인은 .83, ‘트랜드’ 요인은 .80, ‘현대적’ 요인은 .76, ‘어려보이는’ 요인은 .90, ‘복고적’ 요인은 .71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다.

본 연구에서 헤어추구이미지 중 개성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K. Ha(2006)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트렌드에 따른 현상이다.

2.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헤어추구이미지 선호도의 차이

1) 연령에 따른 헤어추구이미지 선호도 차이

연령에 따른 헤어추구이미지 선호도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3. Reliability of Every Question on Pursued-Image of Hairstyle

Factor	Question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ach question and factor	Variation of factor- α eliminating each question	Reliability of factor (factor- α)
Personality	The hairstyle of carefree image	.827	.814	.89
	The hairstyle of carefree and unique image	.791	.846	
	The hairstyle of carefree and natural image	.752	.879	
Soft	The hairstyle of tender and intimate image	.558	.733	.78
	The hairstyle of comfortable image	.556	.729	
	The hairstyle of neat image	.598	.712	
	The hairstyle of calm image	.599	.713	
Elegance	The hairstyle of elegance image	.685	.778	.83
	The hairstyle of sophisticated image	.754	.708	
	The hairstyle of mature image	.645	.818	
Trendy	The hairstyle of the latest fashion	.662	.714	.80
	The hairstyle of popular entertainers	.747	.619	
	The hairstyle of celebrities	.542	.834	
Modern	Sophisticated hairstyle	.632	.614	.76
	Urban hairstyle	.686	.548	
	Futuristic and progressive hairstyle	.448	.813	
Looking young	The hairstyle of lovely image	.767	.884	.90
	The hairstyle of cute image	.822	.837	
	The hairstyle of lively image	.812	.846	
Retro	The hairstyle of retrospective image	.514	.645	.71
	The hairstyle of conservative image	.545	.608	
	The neat hairstyle of dignified image	.538	.616	

Table 4. Difference of Preference on Pursued-Image of Hairstyle according to Age

(N=404)

Age	The age of 20s (n=106)	The age of 30s (n=123)	The age of 40s (n=100)	Over 50s (n=75)	F
Personality	3.43(a)	2.93(b)	2.84(b)	2.56(c)	16.6**
Soft	3.52(b)	3.62(ab)	3.75(a)	3.63(ab)	2.78*
Elegance	3.14(b)	3.22(ab)	3.31(ab)	3.44(a)	2.77*
Trendy	3.43(a)	3.17(b)	3.12(b)	2.72(c)	14.6**
Modern	3.56(a)	3.34(b)	3.42(b)	3.15(c)	6.55**
Looking young	3.44	3.41	3.45	3.24	1.37
Retro	2.85(b)	3.05(a)	3.10(a)	3.18(a)	4.34**

*p<.05, **p<.01, Letters a, b, c are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5)

Table 4에서 연령에 따른 헤어추구이미지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어려보이는 이미지를 제외한 6개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개성, 트렌디, 현대적 이미지는 20대가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복고적 이미지는 30, 40, 50대 이상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낮게 나타났다. 부드러운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는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아한 이미지는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최신 유행스타일이나 유명헤어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단정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 No(2011) and M. Lee(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2) 월평균수입에 따른 헤어추구이미지 선호도의 차이

월평균수입에 따른 헤어추구이미지 선호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월평균수입에 따른 헤어추구이미지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개성, 부드러운, 트렌디, 현대적인 이미지에서 월평균수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0만원 미만, 150-250만원 미만의 집단이 250만원 이상의 집단보다 개성적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드러운, 트렌디, 현대적 이미지의 경우 150-250만원 미만의 집단이 가장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0만원 이상의 집단이 가장 낮았다. 이는 비교적 월평균수입이 중간수준일 때 개성, 부드러운, 트렌디, 현대적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월평균수입 수준의 경우 연령과 학력과 상관관계가 많고, 사회적 트렌드를 따라가는 성향으로 인해 개성, 부드러운, 트렌디, 현대적 이미지를 선호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월평균수입 수준이 유행 헤어스타일 추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G. Ha(2012)의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3) 학력에 따른 헤어추구이미지 선호도 차이

학력에 따른 헤어추구이미지 선호도 차이를 t검정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5. Difference of Preference on Pursued-Image of Hairstyle according to Average Monthly Income (N=404)

Average monthly income \ Hairstyle image	Under 150 million won (n=113)	Under 150-250 million won (n=145)	Over 250 million won (n=146)	F
Personality	3.12(a)	3.12(a)	2.70(b)	10.29**
Soft	3.59(ab)	3.73(a)	3.55(b)	3.88*
Elegance	3.21	3.31	3.26	.622
Trendy	3.12(ab)	3.27(a)	3.03(b)	3.93*
Modern	3.30(ab)	3.49(a)	3.27(b)	4.04*
Looking young	3.32	3.48	3.37	1.40
Retro	2.94	3.10	3.05	1.95

*p<.05, **p<.01, Letters a, b, c are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5)

Table 6. The Difference of Preference on Pursued-Image of Hairstyle according to Educational Level (N=404)

Educational level \ Hairstyle image	Below high school graduate (n=211)	Over bachelor degree (n=193)	t
Personality	2.96	2.98	-.205
Soft	3.60	3.66	-.982
Elegance	3.25	3.28	-.384
Trendy	3.03	3.26	-3.13**
Modern	3.32	3.44	-1.67
Looking young	3.28	3.52	-3.09**
Retro	3.02	3.05	-.340

**p<.01

Table 6에서 학력에 따른 헤어추구이미지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트렌디, 어려보이는 이미지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 이하 보다 대졸 이상이 트렌디, 어려보이는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과 상관관계가 많아 학력이 높을수록 소

득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최근 어려보이는 이미지가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중요 트렌드이며, 이러한 최신유행을 따라가기에는 비용이 발생되므로, 학력이 높을수록 트렌디하고 어려보이는 이미지를 선호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인구통계적 특성과 선호 헤어스타일의 관계

1) 연령에 따른 선호 헤어스타일의 관계

연령에 따른 선호 헤어스타일의 관계를 χ^2 검정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연령과 선호 헤어스타일과의 관계는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Column%로 볼 때, 전체적으로는 본 연구의 대상자의 경우 단발커트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숏커트를, 층이 있는 긴 머리를, 층이 없는 긴 머리를, 상고커트의 순으로 나타났다. 숏커트와 상고커트는 50대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선호하였고, 단발커트는 40대 집단에서 가장 선호하였다. 층이 있는 긴 머리는 30대 집단이,

층이 없는 긴 커트는 20대집단이 가장 선호하였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숏커트 스타일을 더 선호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층이 없는 긴 머리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숏 펌 헤어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H. Lee(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2) 월평균수입과 선호 헤어스타일의 관계

월평균수입과 선호 헤어스타일의 관계를 χ^2 검정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월 평균 수입과 선호 헤어스타일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Table 7. Relations between Age and Favorite Hairstyle

()=col. %

Age Hairstyle as to length	The age of 20s	The age of 30s	The age of 40s	Over 50s	Total	χ^2
Short cut	21(22.1)	19(17.4)	22(23.7)	22(34.4)	84(23.3)	39.27** df=12
Crew cut	3(3.2)	9(8.3)	10(10.8)	10(15.6)	32(8.9)	
Bob hair cut	23(24.2)	29(26.6)	33(35.5)	17(26.6)	102(28.3)	
Layered long hair cut	19(20.0)	30(27.5)	19(20.4)	14(21.9)	82(22.7)	
None layer long hair cut	29(30.5)	22(20.2)	9(9.7)	1(1.6)	61(16.9)	
Total	95(100.0)	109(100.0)	93(100.0)	64(100.0)	361(100.0)	

** p<0.1

Table 8. Relations between Average Monthly Income and Favorite Hairstyle

()=col. %

Average monthly income Hairstyle as to length	Under 150 million won	Under 150-250 million won	Over 250 million won	Total	χ^2
Short cut	21(20.0)	30(22.6)	33(26.8)	84(23.3)	12.69 df=8
Crew cut	5(4.8)	11(8.3)	16(13.0)	32(8.9)	
Bob hair cut	27(25.7)	43(32.3)	32(26.0)	102(28.3)	
Layered long hair cut	29(27.6)	32(24.1)	21(17.1)	82(22.7)	
None layer long hair cut	23(21.9)	17(12.8)	21(17.1)	61(16.9)	
Total	105(100.0)	133(100.0)	123(100.0)	361(100.0)	

3) 학력과 선호 헤어스타일의 관계

학력과 선호 헤어스타일의 관계를 χ^2 검정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9에서 학력과 선호 헤어스타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4. 선호 헤어스타일에 따른 헤어추구이미지 차이

선호 헤어스타일에 따른 헤어추구이미지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9. Relations between Educational Level and Favorite Hairstyle

()=col. %

Hairstyle as to length	Educational level			χ^2
	Below high school graduate	Over bachelor degree	Total	
Short cut	50(26.5)	34(19.8)	84(23.3)	3.76 df=4
Crew cut	18(9.5)	14(8.1)	32(8.9)	
Bob hair cut	49(25.9)	53(30.8)	102(28.3)	
Layered long hair cut	44(23.3)	38(22.1)	82(22.7)	
None layer long hair cut	28(14.8)	33(19.1)	61(16.8)	
Total	189(100.0)	172(100.0)	361(100.0)	

Table 10. Difference of Pursued-Image of Hairstyle according to Favorite Hairstyle

(N=404)

Pursued image of hairstyle	Preferred hairstyle					F
	Short cut (n=84)	Crew cut (n=32)	Bob hair cut (n=102)	Layered long hair cut (n=82)	None layer long hair cut (n=61)	
Personality	3.87(bc)	2.64(c)	2.95(abc)	3.05(ab)	3.22(a)	2.81*
Soft	3.53	3.66	3.68	3.66	3.68	.916
Elegance	3.12(c)	3.54(a)	3.22(bc)	3.24(bc)	3.41(ab)	2.64*
Trendy	3.09	2.95	3.17	3.10	3.28	1.24
Modern	3.35	3.33	3.33	3.44	3.48	.788
Looking young	3.14(b)	3.54(a)	3.35(ab)	3.48(a)	3.52(a)	3.19*
Retro	3.05	3.30	3.05	2.94	3.09	1.71

*p<.05, Each Character a, b, c is the Result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Table 10에서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에 따른 헤어추구이미지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개성, 우아한, 어려보이는 이미지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층이 없는 긴 머리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이 개성적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고커트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은 우아한 이미지와 어려보이는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짧은 컷 웨이브헤어스타일의 경우 화려하고 독특한 이미지 선호 집단이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 No(2011) and M. Lee(2004)의 선행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우아하면서도 어려보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고커트스타일의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타인의 권유나 시선을 의식하여 헤어스타일 변화를 하였으며, 학력 수준은 낮을수록 사회생활을 고려하여 헤어스타일 변화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과 학력, 월수입이 높을수록 우아하고 어려보이는 이미지를 추구하였으며, 상고커트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은 집단이 숏커트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반면, 연령이 낮은 집단이 층이 없는 긴 머리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헤어스타일 변화와 헤어추구이미지 및 선호스타일이 일치하거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연구시점에 따른 트렌드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미용실 고객 중 여성들을 대상으로 헤어추구이미지, 선호 헤어스타일의 특성 및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분석법에 따른 헤어스타일 분석 결과 대체로 숏커트, 상고커트, 단발커트, 층이 있는 긴 커트, 층이 없는 긴 커트의 5개 스타일로 조사되었으며, 층이 없는 긴 머리스타일에 스트레이트 질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층이 없는 긴 커트스타일에 웨이브 질감, 층이 없는 긴 커트스타일에 웨이브 질감, 층이 있는 긴 커트스타일에 웨이브질감, 단발

커트스타일에 웨이브질감, 층이 있는 긴 커트스타일에 스트레이트질감, 상고커트스타일에 스트레이트질감, 숏커트와 상고커트스타일에 웨이브질감의 순이었다.

둘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헤어추구이미지 및 선호스타일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먼저, 연령, 월평균수입, 학력이 헤어추구이미지 선호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연령은 개성, 트렌디, 현대적 이미지를 20대가 가장 선호하였으며, 복고적 이미지를 30, 40, 50대 이상이 가장 선호하였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40대가 가장 선호하였으며, 우아한 이미지를 50대 이상이 가장 선호하였다. 또한 월평균수입은 150만원 미만, 150-250만원 미만의 집단이 개성적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고, 150-250만원 미만의 집단은 부드러운, 트렌디, 현대적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 보다 대졸 이상이 트렌디, 어려보이는 이미지를 더 선호하였다. 한편 선호헤어스타일은 연령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50대 이상의 집단이 숏커트와 상고커트스타일을 가장 선호하였고, 40대 집단은 단발커트스타일을 가장 선호하였다. 30대는 층이 있는 긴 커트스타일을 선호하였고, 20대는 층이 없는 긴 커트스타일을 가장 선호하였다.

셋째, 선호헤어스타일과 헤어추구이미지와 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선호 헤어스타일은 헤어추구이미지에 영향을 주었다. 즉 층이 없는 긴 머리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이 개성적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고, 상고커트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은 우아한 이미지와 어려보이는 이미지를 더 선호하였다. 선호 헤어스타일은 헤어스타일 변화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령이 높을수록 타인의 권유나 시선을 의식하여 헤어스타일 변화를 주며,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생활을 고려하여 변화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 학력, 월수입이 높을수록 우아하고 어려보이는 이미지를 선호하였으며, 상고커트스타일을 더 선호하였으며,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숏커트스타일을 더 선호하였고,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층이 없는 긴 머리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령, 월평균수입, 학력이 헤어스타일 변화속성, 헤어추구이미지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월평균수입, 학력이 헤어스타일 변화속성, 헤어추구이미지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고객들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구체화시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며, 헤어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하여 잡지를 이용한 내용분석을 하였으나, 보그 코리아 2013년 9월호로 한정하였으므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를 미용실 고객 중 여성을 중심으로 임의표집하였고, 지역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References

- Bae, E., & Sung, H. (2013). Comparison of benefit sought and makeup behaviors based on fashion leadership and appearance interest.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7(4), 107-123.
- Beauty Fashion*. (2013. 09). Seoul: JEIL Publishing Co. Ltd.
- Donna, F. (1991). *Color with style*. Tokyo: Graphic-sha publishing Co. Ltd.
- Estetica*. (2013). Seoul: CM Media.
- Ha, C., Ko, A., & Chung, M. (2005). Female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 and hair style attitude as related to sensation seeking and body im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9(5), 715-726.
- Ha, G.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general characteristics to hair style and hair style awareness among wome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eokyeong University, Seoul, Korea.
- Ha, K. (2006). *A study of the image in men's hair style depending on hair color and text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Ha, K. (2011). An effec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 & sensation-seeking on the attitude of hair style in adolescence.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9(1), 97-106.
- Hair graphy*. (2013. 09). Seoul: FaxBM,
- Kang, K. (2007). *A study on the individual hair style preference according to occup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Kim, B. (1999). *The effect of woman hairstyle's on the impressions and likenes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Busan, Korea.
- Kim, H. [Hwan]. (2001). *Twelve fingers upstyle*. Seoul: Downon.
- Kim, H. [Hyeran]. (2006). *The effects of middle-aged women's self-esteem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n their hair styl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Hyangwon]. (2011). *About the hair style of the woman affects in the image research*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of hair styl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women cli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Kim, K. (2012). *A study on women's benefits, interest, and preferences regarding hair styles according to lifestyle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eokyeo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 Lee, K. (2007). A research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 20-40's women according to Degree of appearance concern.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1(4), 29-41.
- Lee, K., Kim, Y., & Kim, A. (2012). *패션과 이미지 메이킹* [Fashion & Image Making]. Paju:

- Kyomunsa.
- Lee, H. (2008). *Classification image and preference about visual evaluation of hair sty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Busan, Korea.
- Lee, M. (2004). A study on image perception according to perceiver's social value and hair style variat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2(6), 971-983.
- Lee, O. (2009). *A comparative study of women's hair style in big cities and small and medium citie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2007). A study on image to hair shape and length of hair sty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3(3), 915-932.
- No, S. (2011). *A study on hair style behavior and make-up motivation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relation and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women in their 20s, 30s, and 40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eo, H. (2010). *A study on the interest in hairdressing and preference for hair style of middle-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eokyeong University, Seoul, Korea.
- Yoon, S. (2001). *The effect of make up and hair style for impression form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Daegu, Korea.
- Wella Korea look book. (2013). Fast retailing Co. Ltd. Retrieved September 18, 2013, from <http://www.wella.com/professional/countryselctor>

Received(March 5, 2014)

Revised(April 15, 2014; June 04, 2014)

Accepted(June 13, 2014)